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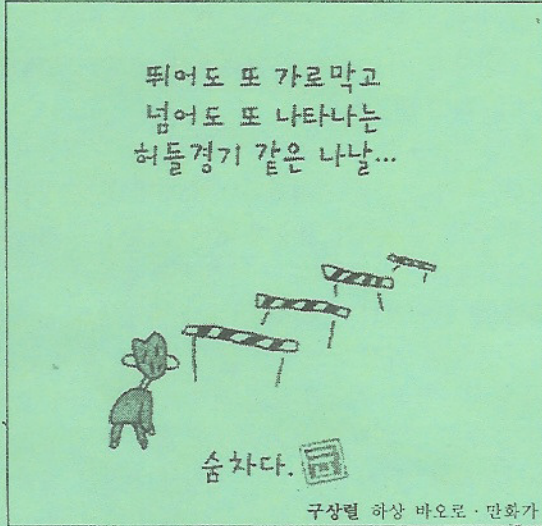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10주일(예수성심 성월)
제28권 28호(가해) 2008·6·8

[묵상]



고소 공포증

높은 곳에 사는 것을 어지러워하는 이
칭찬으로 높아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
오래 배워 높아지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이
높은 자리를 겁내 하는 이
그런
고소 공포증이 있는 이
그 사람이 나라면
지금 죽어도 좋으련만...

◆최진수 에우세비오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목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금요일	평일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주일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화요일	신앙학교 제4단계(종강)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 (Lectio Divina) 래지오 마리아에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 (Lectio Divina) M. E. Sharing(3째주) 울뜨레아 (4째주)	오전 10:00 오후 7:0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레 (4번째 토요일) 매론 청년모임 폐제기도모임 (2째주 토요일)	오후 6:00 오후 5:00 오후 8:30
주일	병자 영성체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일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평협회장 : 오세원 아타나시오 (310)327-803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최재선 요한 주교, 김종돈 스테파노, 고준희 제임스 박요셉, 이마리아, 김세실리아, 심재순
	(생)배론정년회, 고천용과 고규재 체칠리아 가정, 홍관 조지 가보라, 박영식 마오로와 박분도, 최사비노 가정 변세연 대전 안드레아, 송보나, 박진수 스테파노 가정 정리디아, 고안나, 권희창 요한, 장수창 요한과 장주란 마리아 가정, 성령세미나 참석자들, 방부역 신부님
주 일 낮 미사	(연)최재선 요한 주교님, 정명조 아우구스티노 주교님 김종돈 스테파노, 이영자 마리아, 이현호 요한, 고순이 고준희 제임스, 정형두 마오로, 이금순 마리아 이원길요한과 성순분 수산나, 최복덕 마리아 지동환 안셀모, 심재순
	(생)고천용과 체칠리아 가정, 이종민 요셉, 박준구 요한 임베르나르도와 에메레타 가정, 이진향 아녜스 이영숙 수산나, 김대평 다니엘, 이진호와 보나 가정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호세아(Hosea) 6,3-6
화답송	◎옳은 길을 걷는 이에게는 하느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전례성가80, 연중 제10주일 A해> ○주 하느님이 말씀하시고 땅을 부르셨도다. 해뜨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네 번째가 항상 내 앞에 있으니, 너를 제사 때문에 꾸짖음이 아니로다.◎ ○누리와 그 안에 찬 것이 내 것이니, 굶주려도 너에게는 말하지 않으리라. 내가 황소 고기를 먹거나 할 것이나, 숫염소의 피를 마시거나 할 것이냐.◎ ○찬미의 제사를 하느님께 바치라. 지존께 네 서원을 채워드리라. 너 나를 부르는 곤궁한 날에, 나는 너를 구하고 너는 내게 영광을 돌리리라.◎
제 2독서	로마서(Romans) 4,18-25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도다.◎
복 음	마태오(Matthew) 9,9-13
영성제송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 저의 하느님, 이 몸 피신하는 저의 바위시옵니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218	311
봉헌	409	261,229
성체	367	309,298
파견	351	193

13. 선교(宣敎)하는 교회(계속)

▶ 예언직 (예언자 직분)

교회의 선교 사명은 세상에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는 일이다. 마오로 사도는 “사실은 내가 복음을 선포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나는 참으로 불행할 것입니다.”(1코린 9,16) 하고 말하면서, “말씀을 선포 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계속하십시오. 끈기를 다하여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타이르고 꾸짖고 격려하십시오.”(2티모 4,2) 하고 권고하였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는 말과 행동으로 선포하여야 한다. 우리의 생활 자체가 그리스도의 복음 정신에 뿌리박고 그것을 몸소 실천하는 생활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인답게 가정에서 화목을 이루고 직장에서 성실하며 이웃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리고 언제나 바르게 행동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늘 기쁘고 희망찬 삶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신앙에 대하여 궁금해 하고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또한 세상에 복음을 전하려면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와 교리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필요하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남에게 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사제직 (사제 직분)

교회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일에 동참함으로써 선교 사명을 수행한다.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계승한 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같은 식탁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며, 죄를 용서받게 하여 줌으로써 하느님의 백성을 거룩함으로 인도한다. 세례 성사를 받은 신자들은 사제적 백성이 되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 구원을 위하여 희생 제물로 바치신 것처럼, 날마다 수고하고 열성적으로 노력하여 자기 삶을 하느님께 바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수행하게 된다.

▶ 왕직 또는 봉사직 (봉사자 직분)

교회의 선교 사명은 또한 세상에 봉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분의 왕국은 이 지상의 왕국이 아니라 참 행복이 이루어지는 하느님 나라이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왕들처럼 사람들 위에 군림하시지 않으신다. 그분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마르 10,45) 오셨다. 최후의 만찬에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 준 것이다.”(요한 13,14-15) 하고 가르치셨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 특히 가장 보잘것없는 이웃들에게 봉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야 할 것이다.

◆(CBCK 제공)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세금을 걷는 직업을 갖고 있던 마태오를 부르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다가가서 “나를 따라라” 하고 초대하십니다. 이제껏 그 누구도 따뜻한 말 한 마디 건네주지 않고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소외되었던 마태오, 세관이 삶의 모든 것이라는 체념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했던 마태오, 자신은 하느님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하는 비참한 인간이라고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가야 했던 마태오, 이러한 그에게 다가온 하느님의 초대였기에 그 기쁨은 매우 컸을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마태오는 일어나 그분을 따라갑시다. 성경에서 ‘일어나다’라는 단어가 ‘부활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음을 생각한다면, 이제껏 마태오의 상태는 죽은 상태, 곧 생명이 없고 어두움만이 있던 상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가 일어나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이제 어두움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기쁨을 그는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고자 예수님과 그 일행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복음에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다른 이들로부터 비난받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리사이들은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마태 9,12).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바리사이들을 튼튼한 이들로, 세리와 죄인들은 병든 이들로 비유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사명이 무

엇인지 밝히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도와 주기 위해, 치유하시기 위해 그리고 해방시키기 위해 오신 것이 단죄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사이들은 세리를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자처했지만, 이러한 판단은 인간적인 것이지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바리사이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마태 9,13). 오늘 제1독서에도 나오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불성실한 회개에 대해 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외적 행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 자세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보여 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타인에 대한 자비로움으로, 겸손함으로 그리고 타인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하느님께 바치는 제사가 그분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그것을 바치는 이의 마음이 하느님의 눈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느님은, 오늘 제2독서에서 나타나듯, 오직 당신만을 바라보며 희망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마태 11,29)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또 한 번 울려 퍼집니다. 그 누구도 하느님의 사랑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리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자처하면서 타인을 단죄하지 말고, 오히려 온유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곁에 머물도록 합시다.

◆변종찬 마태오 신부<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이번주 전례 봉사자

다음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지영 크리스티나	신중철 아브라함	최진수 에우세미오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정미영 미카엘라	신중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우경석 사도요한	최영신 프란치스코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김제영 프란치스코	배제일 미카엘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이성연 크리스티나	서용숙 에스텔	박혜선 안젤라	제2독서자	이화영 잔다르크	배영민 아나스타시아	강혜원 아네스
제물봉헌자			토런스 북 1,2반	제물봉헌자			토런스 동 1반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시다.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6월 ☆
 ☆ 예수성심성월 ☆
 ☆ 정 시간 : 12일(목) 저녁미사와 함께 ☆
 ☆ 진행 : 토런스 서구역 ☆

◆ 성령안의 새생활 세미나 과견미사 및 치유예절

지난 일주일간 본당 제7차 성령안의 새생활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신자 여러분들과 준비와 진행을 맡은 성령기도회, 그리고 세미나를 지도해주신 방부역 요한 신부님(사도 성 요한 수도회)께 감사드립니다.

- 과견미사 및 치유예절 : 오늘 주일(8일)
오후 4시20분~6시, 성전

◆ 백삼위 울뜨레아 6월 정기모임

- 오늘 주일(8일) 낮미사 후 유아실, 점심을 함께 나눕니다.
- 7월초에 있을 남성 꾸르실료를 앞둔 모임으로 본당 꾸르실리스타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제8차 무숙자들을 위한 봉사

- 오늘 주일(8일) 롱비치 홈리스 셸터
- 음식 및 이발 봉사
- 봉사를 원하는 교우들은 오후3시까지 친교장으로 모여 주십시오. ☎ 310-283-5879 사회복지분과

◆ 2008년 중·고등부 찬미의 밤(Praise & Worship)

- 일시 : 6월13일(금), 오후 7시30분~10시, 강당
- 주제 : "Selfless" (나를 버려라)
- 밴드 : 백삼위 주일학교 SOEL 밴드
(Sound Of Euphonic Laudation)

◆ 초,중,고등부 세례 및 첫영성체

- 참 고 : 6월14일(토) 오후 3시
- 총연습 : 6월14일(토) 오후 4시

주일학교 / 한국학교 소식

◆ 여름방학 6월15일(주일)~8월31일(주일)

- 종강 : 오늘주일(6월8일)
- 개강 : 9월7일(주일)

◆ 주일학교 새학기 등록

- 등록마감 : 오늘 주일(8일), 미사 전 · 후
- 대 상 : 유치부(K)~12학년까지
- 등록비 : 첫째아이 \$100, 둘째 \$80, 셋째 \$60, 넷째아이부터는 무료(자모회비 : 한 가정당 \$40)

* 한국학교 등록은 추후 발표

- 세례식 : 6월14일(토) 오후 5시(유아세례도 있습니다.)
- 첫영성체 : 6월15일(주일), 낮미사 중(11시)
- 축 하 식 : 6월15일(주일), 낮미사 후, 강당

◆ 제8회 M.E. 친선 골프대회

- 일시 : 6월18일(수), 티오프 오전 11시(샷건 플레이)
- 장소 : 로스 버디스 골프코스(R.P.V.)
- 주최 : 남가주 한인M.E.운동본부
- 연락 : 오영섭 스테파노 + 요안나 본당 M.E. 대표부부
☎ 310-922-1502 (많은 상품이 준비되었습니다.)

◆ 제17차 선택주말 참가자 모집

- 날짜 : 7월25일(금)~27일(주일)
- 대상 : 22세~35세 미혼 남녀
- 장소 : Marywood Retreat Center
(2811 Villa Real Dr. Orange, CA 92867)
- 참가비 : \$150
- 신청마감 : 6월13일(금) ☎ 323-244-0848 이레아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6월8일(주일) : 토런스 동1반 (카래라이스 \$3)
- 6월15일(주일) : 토런스 북1.2반 (잔치국수 \$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순복	고천용	구본엽	김광자	김선영	김선제	김영정
	김원태	김인열	김종환	김철수	김태호	남명자	노혜숙
성전헌금	문영일	민기남	민상기	박동수	박영식	박정자	박정희
	박종열	박준구	방정복	배진영	서홍삼	성낙호	신경훈
합계 : \$7,590	안재만	엄지선	오일순	오 진	오진자	원건희	유선식
	유영균	유인섭	유정복	유태현	윤선희	윤희동	이귀분
미사헌금 : \$2,892.50	이근모	이명자	이연행	이영숙	이영희	이은록	이인두
	이일형	임연조	임종택	임한나	장숙환	장영우	정순석
2차헌금 : \$1,014	정열모	정지숙	조경림	조동욱	조운영	조화숙	주대중
	최귀환	최재은	한혁수	현석주	홍석철	홍운정	황인중
합사헌금 : 민형기 윤의숙	황학수	영희가보라					

성전헌금	강순복	고천용	구본엽	김광자	김선영	김선제
	김인열	김종환	김철수	김태호	남명자	노혜숙
합계 : \$6,851	문영일	민기남	민상기	박동수	박정자	박정희
	박종열	박준구	배진영	서홍삼	성낙호	안재만
리사이클링 수입 : \$151	오진자	원건희	유선식	유영균	유정복	이귀분
	이근모	이명자	이영숙	이영희	이은록	이일형
	임종택	임한나	장숙환	장영우	정순석	정열모
	조경림	조운영	조화숙	주대중	최귀환	최재은
	한혁수	현석주	홍석철	황인중	영희가보라	

이 주간의 축일 (6월8일~6월14일)

축하합니다

- 8일 : 막시미노 주교, 메다르도 주교, 윌리엄 주교, 텔라니아 수절, 시라 동정녀
- 9일 : 에프렘 부제 학자, 프리모 순교자, 골롬바 원장, 펠라지아 동정 순교자
- 10일 : 마우리노 원장 순교자, 바르도 주교, 보구밀로 주교, 레스티투 토 순교자, 올리바 동정 순교자
- 11일 : 바르나바 사도, 펠릭스 순교자, 포르투나토 순교자, 파리시오 수도자, 도콸라 동정녀
- 12일 : 요한 증거자, 바실리데스 순교자, 레오 3세 교황, 크리스티아노 주교, 안토니아 동정 순교자, 쿠네라 동정녀
- 13일 : 안토니오 사제 학자, 펠리쿨라 동정 순교자, 아켈리나 순교자
- 14일 : 발레리오 순교자, 루피노 순교자, 메토디오 주교, 디나 동정 순교자

남가주 소식

◆ 성령안의 치유피정

- 일시 : 6월12일(목)~15일(주일)
- 장소 : 성삼 성당 (1230N. San Fernando Rd. LA)
- 강사 : 정중규 클라로 신부 외 고영민, 정구중, 김찬도, 두현자
- 참가비 : \$30(간식제공) * 시간문의 ☎ 323-221-8874

◆ 원필호 요한 몬시뇰 사제수품 50주년 금경축 미사

- 일시 : 6월15일(주일) 오후 2시
- 장소 : 성크리스토퍼 한인천주교회 ☎ 626-960-5647

◆ 미주 재속 가르멜회 성소 안내

- 자격 : 세례성사를 받은지 3년 이상, 견진성사를 받은 55세 이하, 법적, 지적, 윤리적으로 건강한 신자
- 청원자 교육 : 6,7,8월 월모임(둘째주일)통해 교육
- 장소 : 521 N. Euclid St. La Habra, CA 90631
- 문의 : 유철희 바오로 ☎ 310-320-3697

◆ 청소년들을 위한 꽃동네 Summer Camp 피정

- 일시 : 6월26(목)~29(주일), 3박 4일
- 대상 : 7학년~12학년
- 참가비 : \$120 ☎ 951-302-3400

◆ 청년들을 위한 성령안의 새생활 세미나

- 일시 : 7월3일(목)~6일(주일)
- 지도 : 최석현 마르코 신부
- 참가대상 : 18세~33세 미혼 및 기혼자
- 신청 : 6월20일까지, 회비 : \$170
- 장소 : 테메쿨라 꽃동네 ☎ 714-458-4687 John Cho

이번 주 단체 모임

모임의 날	오전 9시, 오후 1시
-------	--------------

다음 주 단체 모임

행사의 날	
-------	--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장	권순길 세실리아	(310)365-2183	
차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차장	권병연 리디아	(310)938-3255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김양금 안나 518-3041	김양금 안나 518-3041
	2	신중철 아브라함 619-4343	김찬구 요한 701-6343 6/14(토) 오후7시, 강당
	3	한길선레 스프라스티카 782-1025	한길선레 스프라스티카 782-1025 6/13(금) 오후8시
	4	정종미 클라라 373-1237	정종미 클라라 373-1237
토런스 서 김숙희 오티리아 782-8549	1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김충섭 마틴 533-1435 6/21(토) 오후 7시
	2	이명순크리스티나 374-1572	최상만 사비노 540-9230 6/13(금) 오후 7시
	3	김미성 미리암 798-6540	김미성 미리암 798-6540 6/10(화) 오전 10시30분, 월슨 팍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김써니 클라라 612-8840	1	신성주 엘리사벳 891-1837	엄영숙 마리아 373-5662 6/13(금) 오후 7시
	2	임진희 한나 720-7898	양희숙 오티리아 328-7795 6/11(수) 오전 10시30분
	3	임형미 사비나 213-258-7797	안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6/14(토) 오후 6시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1/2	박정희 마리아 800-3709	권오상 바오로 257-8416 6/13(금) 오후 7시
	3	천광락 야고보 408-3175	천광락 야고보 408-3175
하버 카슨 박혜경 레나타 808-5005	1	최경애 프란치스카 326-6587	최경애 프란치스카 326-6587
	2	김희복 아네스 326-2283	주다니엘 530-3470 6/14(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1794	1	유성혜 도미니카 562-209-4454	유성혜 도미니카 562-209-4454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안민수 베드로 544-6807 6/13(금) 오후 7시30분
	3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김택수 프란치스코 544-9532 6/13(금) 오후 7시
	4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임엘렌 373-1690 6/4(수) 오전 10시30분

“혹시, 저더러 따르라는 말씀입니까?”

“Mens sana in corpore sano!”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라틴어 속담이다. 병든 자의 아픔은 육체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말과도 같다. 육체가 약해지면 영혼도 약해지기 마련이다. 예수님 시대에 한센병(나병) 등 모든 종류의 피부병 환자들을 물론이고 갖가지 육체의 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은 죄인으로 취급받았다. 설상가상(雪上加霜)이다. 그러나 실제로 모세의 율법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면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사제의 선언에 의해 스스로 ‘부정(不淨)한 사람’이라고 외쳐야 하며, 병이 있는 동안 그 사람은 진지 밖에 자리를 잡고 따로 살아야 하기는 했다.(레위 13,46) 그러나 율법이 그를 죄인(罪人)으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누가 병자들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격리시키고 소외시켰는가? 바로 사람들이다. 그들이 바로 스스로의 죄를 씻기 위해 하느님께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던 사제들이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다. 물론 하느님 앞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이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하지 못한다. 죄인은 스스로에 의해 고백되거나 하느님에 의해서만 선언될 뿐이다. 그러나 하느님은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하기보다 가급적 죄를 묻지 않으시며, 묻더라도 용서하기 위해 물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어떤 병자들 그 의 병을 치유하기에 앞서 죄를 먼저 용서하여 주신 것은 육체적인 병보다 그로 인해 죄의 굴레를 뒤집어쓰고 살아야 했던 정신적인 병을 더 걱정하셨기 때문이다. 이제 예수께서는 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그릇된 사고(思考)를 바로잡아 주신다.

오늘 복음에서 직업이 세리였던 마태오가 제자로 불림을 받는다. “나를 따라라.”는 예수님의 한 말씀에 즉각 따라 나선 마태오다. 단 한 구절의 간략한 이 대목은 사실상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카파르나움 도읍의 나들목에 자리를 잡고 로마제국을 위해 각종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리 마태오는 이미 당대의 상업적 죄인으로 취급받았다. 만약 내가 세리였다면 어떻게 했겠는가?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설마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왜? 본인 스스로가 죄인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복음의 이 대목을 기록한 마태오복음사가 스스로가 자신을 죄인의 그룹에 넣고 있다. 그러면서 누구를 부르는 것인지 주위를 한번 둘러보았을 것이다. 아무도 반응을 보이지 않자, 마태오는 자신을 가리키며 “혹시, 저 말씀입니까?”하고 반문했을 지도 모르는 일이다. 마태오의 반신반의가 믿음으로 기울었다. 이미 여러 제자들뿐 아니라 무리를 거느리고 다니시는 예수께서 자신을 지목한 것이다. 기회는 왔다. 언제가는 그만 두어야겠다고 생각한 세리의 직업을 벗어 던지고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그래서 마태오는 모든 것을 버리고 아무런 미련 없이 예수를 따라 나선 것이다.

하느님께서서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신다. 하느님의 말씀과 행동의 핵심은 사회로부터 소외된 사람들과 스스로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대한 자비와 용서이다. 이로써 예수님 시대에 죄인으로 분류되었던 세관원이 제자의 반열에 들게 된 것이다. 예수께서는 마태오를 당신의 제자로 불러 그냥 따라다니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신다. 추종은 곧 친교(親交)를 의미한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라나선 마태오의 집을 방문하여 그의 동료 세리들과 많은 죄인들과 함께 식탁공동체를 주관하시면서 친교를 선물로 주신다.(10절) 물론 바리사이들은 이를 보고 못마땅해 한다.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은 ‘흑백(黑白) 친교 불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흑백의 논리를 ‘의사와 병자’(12절), ‘제사와 자선’(호세 6,6 참조), ‘죄인과 구원’(13절)의 원리로 보시면서 이 둘은 서로 깊이 관련되어 있으며,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대상임을 천명하신다. 이 땅에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신 이래로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일이 율법의 규정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되었다. 걸어 다니시고 말씀하시며 행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느님께서서는 자연과 마귀와 죄 위에 군림하는 최고의 권위로서 사랑과 자비와 용서의 선물을 이 땅에 선사하시는 것이다. 남을 부정(不淨)하다고 하여 자신이 정(淨)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남을 죄인으로 규정한다고 자신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 세리 마태오와 같이 오직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며 ‘나를 따르라’는 거룩한 부르심을 추종하여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스스로 실천할 때 하느님 앞에 거룩한 자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다. “나, 주 너희 하느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레위 19,2)

◆박상대 마르코 신부